

저자 (Authors)	이관일
출처 (Source)	<a href="#">국어국문학 31</a> , 1966.3, 120-121 (2 pages) <a href="#">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1</a> , 1966.3, 120-121 (2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국어국문학회</a>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399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3996</a>
APA Style	이관일 (1966). 경문왕(景文王) 설화(說話)와 카타르시스. 국어국문학, 31, 120-12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6 13:0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着을 한 것이다. 前者의 實物은 琴合字譜·時用鄉樂譜·梁琴新譜·大樂後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後者의 일은 樂學軌範, 樂章歌詞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當時 verse 意識의 考察에는 勿論 前者들의 것 뿐이 有用할 것이다.

4. 이제 그 verse 捕捉을 上記 樂譜들을 通하여 하게 되는데, 筆者의 考按 으로서는 우선 몇개의 原則을 따라야 된다. “되풀이되는 區間單位”를 發見한 것이다. 대개 鼓法이 基準이 된다. 곧 「鼓·搖·鞭·撻」 이것을 한 單位로 생각하여 이 區間 안에 든 歌語들을 잡아 내어 본다. 이때 몇 問題가 또 惹起된다. 一十六井間, 六大綱, 이 속에 저 네種의 鼓法이 곧 들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 (六大綱 들 或은 넷에 걸쳐 들어 있는 것등)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저 것 原則을 固守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區間, (單位) 속에 든 歌語들의 形式이 甚히 짧은 바가 있는 일이고, 또 意味의으로 均衡을 잃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現象이다. 이 歌語들의 문제가 要處理의 事項이 된다. 곧 高麗 後期人 乃至는 李朝 前期人들의 verse 意識인가? 그 意識 前段階의 것인가? 에 대한 判斷이다.

5. 筆者는 後者로 判斷하며, 이를 基礎하여 그들의 verse를 再構成 볼 수밖엔 없었다. 그리하여 저 “正間”들을 둘 或은 셋 合쳐 비로소 한 verse를 이룩시켰던 바이다.

6. 이렇게, 要綱的으로 말하여, verse를 形成시키고 나면, 다음 問題는 이 verse의 metre——곧 律性的 가늠이 시작된다. 보통 이때 글字數들을 헤어 字數考들을 하나, 이러던 形形色色의 實로 無數한, 따라서 無意義한 結果가 나타나진다. 이에 筆者는 方式으로서, syllabic psycho-accentual metric unit——律步—韻律單位들을 捕捉하는 바이다. 쉽게 보자면: 다시 自然發生的인 單位 行步들을 하되 恒時 缺音節足 (syllabic elision)과 過音節足 (hypermetric foot)들이 있음을 念頭에 두며 하면 된다. 이리하여 麗謠의 統一된 意義的 律性들은 整理되어질 것이다.

## 景文王 說話와 카타르시스

李 寬 逸

自然은 아니고, 社會야말로 神話의 擘 모델이다. 神話의 여러 基本動機는 人間의 社會生活의 投影이다. 이와 같은 投影에 의하여 自然은 社會的 世界的 image가 된다<sup>(1)</sup>. 여기에서 社會는 하나의 遺傳과 傳統의 基本姿勢로 된 조직체 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 Dukkem: 英譯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景文王 說話(三國遺事 卷第二 48 景文王條의 王耳忽長如驢耳…云云以下)에서도 發見될 수 있는 바 樸頭匠의 行動은 神話形式的 諸般過程을 수반한다. 동시에 당시 社會에 있어서의 恐怖에 대한 Katharsis的 屬性을 보여 주는 一端이 된다.

우리 景文王 說話와 類似한 說話가 그리스의 神話 King midas<sup>(2)</sup>와 蒙古의 驢耳汗 說話<sup>(3)</sup>에도 나타난다.

이 유사 說話에서 重要的 三項目은 驢耳가 된 事實과 秘密과 땅을 파서 굴(穴)을 만든다는 것이다. 蒙古의 달암췌의 굴은 대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한 간소한 自然보다는 그 地方의 既存風說을 이용한 것 같고, 原初的인 것은 대나무밭일 것 같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說話의 底流에 잠재하는 心理的要素가 있다. 人間은 秘密을 말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說話가 形成되기 위하여는 굴을 파고 秘密을 마하고 묻었다는데서 이야기는 成立되는 것이다. 곧 人間 生來에서 오는 表出欲求의 圓滑을 기하지 못한 者의 一種의 反抗精神의 歪曲된 모습인 것이다. 樸頭匠이는 景文王이라는 君臣間의 義 곧 絕對者에게 희생의 제물이 된 셈이고, 이 恐怖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其人將死」의 地境에서 君臣의 義를 無視한 行動으로 한 개의 人間으로 自體의 膨淨化를 시도한 것이다.

이 發表衝動의 慾求 滿足은 絕對者인 神 앞에서 正常이 아닌 歪曲된 모습으로 表出되는 것이다. 例를 들면 prometheus의 反抗의 姿勢와 같이, 또는 Aristoteles의 부여하는 意味上的 解釋과 같이 壓迫된 情緒의 解放인 것이다. 이것은 카타르시스다.

景文王 說話는 우리 古代社會에서 이루어진 카타르시스의 典型的인 모습이다.

## 沈清 說話의 分析

—人類的 鄉愁를 中心으로—

黃 淇 江

一般的으로 沈清傳에서 主題視하고 있는 孝觀念은 父家長의 封建制度 밑에서 醜成된 moral이므로 原始說話의 要素는 아니다. 沈清傳에 對한 原始說話의 究明은 沈清傳에 對한 새로운 解釋—本質的 根源의 意味의 發見을 可能케 할 것이다. 人身供繼·胎夢·龍宮·盲人得明·濕生等의 雜多한 說話의 要素들도 沈清이야기의 一斑에 不遇하며 孝觀念과 한가지로 原初的 根源的인 motive로

(2) E. Hamilton : Mythology p. 279

(3) 佐佐木理 : ギリシャ・ローマ神話